

믿음이란?

What Is Faith?

마가복음 8:11-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6월 17일 설교

¹¹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¹²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¹³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사람의 믿음

<중용>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20장 10번). 참됨은 하늘의 도요 참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도다 하는 말인데 완벽함은 하늘에 속했고 사람은 그저 그 완벽함에 가까워지고자 애쓸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애쓴다는 건 쉽게 말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완벽하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피조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그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은지 그것까지 잘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시다만, 이 믿음이라는 걸 보아도 중용이 말한 그런 한계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건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믿음에도 믿음의 반대인 의심의 씨가 조금은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생각할 줄 모르는 기계거나 둘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찬송에 보면 확신한다, 의심치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만 그 역시 참되고자 하는 성지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뭘니까? 말씀이지요? 성경을 믿습시다.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습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을 가야 참 생명에 도달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믿습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 퍼센트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완벽함에 도달한다면 그걸로 끝이겠지요. 옛날 한국 불교에서 돈오 논쟁이라는 걸 했는데 돈오돈수가 맞다면, 깨달는 순간 수양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깨달음과 동시에 도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기도도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일초도 빠짐 없이 늘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천국생활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백 퍼센트 아니라 오백 퍼센트까지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부부싸움 한 판 해 보세요. 곧 돈 값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운전을 한 십 분만 해도 됩니다. 십 퍼센트도 안 남는 것 같지요.

이렇게 우리 믿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 바닥까지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아쉽지요. 차든지 덩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 삶은 늘 그렇게 미지근하고 흐리멍덩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즐겁습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서 세상 재미라도 누리는 게 낫지 세상 재미는 다 포기한 마당에 주 예수를 믿는 재미도 별로 없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적이란?

그래서 대안이 없나 하고 찾는 게 뭘니까? 뭔가 획기적인 계기,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사건,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결길로 가지도 않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늘 찬송을 부르고 누구를 대해서도 사랑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고 죄는 꿈도 꾸지 않을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 어떤 전환점, 그런 걸 찾게 되는데 그런 계기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기적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삿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기드온이 ‘그대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를 보여 주세요’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제물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 국을 쏟으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음식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음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여

호와께서 가서 우상을 때려 부수라 하셨고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얼마 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군대를 조직해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벌여도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증거를 보여 달라 했습니다. 양털을 한 몽치 마당에 둘 텐데 내일 아침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은 말라 있다면 주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걸 근거로 말씀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지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어땀습니까? 마당은 말라 있는데 양털에는 물이 가득한데 짜 보니 한 그릇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한 번만 더 보여 달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마당에는 물이 있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 달라 했습니다. 사람 머리가 이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걸 못 믿게 만드는 논리가 자주 생깁니다. 마당은 말라 있어도 양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혹 있다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도 한 번 해 보자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온 마당에 이슬이 덮였는데 양털만 뽕뽕송송합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군대를 소집하러 나갔습니다.

희미한 삶

기드온 하면 삼백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멋진 지도자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사사기를 직접 읽어보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평도 자주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 걸 보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여기서 뉴욕으로 갈 때 차를 몰고 가기도 하지만 기차를 타기도 합니다. 메트로노스를 타면 그랜드 센트럴 역에 닿는다는 확신을 갖고 역 트랙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놓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뉴욕 가는 트랙이 맞다면 마음이 놓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관광객처럼 보인다면 답을 들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차 역무원이 지나가기에 물어보니까 맞다 합니다. 그러면 진짜 안도할 수 있습니다. 역무원이니까 책임자입니다. 그러니 말의 권위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용서해라, 성내지 마라,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지켜라,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고 거룩한 것만 생각해라.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킵니까? 내 속에 옛 자아가 살아남아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말씀을 백 퍼센트 확신을 못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하지요?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부모님이 곁에 계셔도 함부로 성 못 내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어떻게 마구 성 내고 고함지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사소한 한 마디를 두고도 마지막 날 심판하실 줄 백 퍼센트 믿는다면 말을 함부로 못 하겠지요?

결국 백 퍼센트 믿을 수만 있다면 아마 절대 죄라는 건 안 지을 겁니다. 죄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매 순간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웃에게 또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아무리 나쁜 일, 괴로운 일을 당해도 늘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굳이 천국에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천국이 될 거니까요.

기적과 은사

결국은 믿음이 없어 그런 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처럼 되지요. 내가 아는 이 말씀이 백 퍼센트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기 위해 어떤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 증거만 주어진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현상이 내게 일어난다면, 그 때는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드온처럼 대 놓고 기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근히 기대를 하지요. 만약 하나님이 내 눈 앞에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 도마처럼 정말 든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걸 직접 본다면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런 은근한 기대에 포함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은사입니다. 은사 아시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은사라 부르는데 은사 가운데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

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은 의사의 치료를 통해 또 약을 씹으로써 낫는데 그런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본다면, 혹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거니까 다시는 의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바라기도 하고 누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 맞는지 확인도 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것처럼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줄줄 말하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뜻도 모를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보았으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감생심 꿈을 안 꾸는 거겠지요. 하지만 방언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지만 특히 한국 교인들이 왜 이 방언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은 못 하는 걸 하면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겠지요. 교회에서는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을 겁니다. 방언이 터지면 이 답답한 기도생활도 청산하고 청산유수 같은 기도생활, 날마다 은혜의 운기가 팔팔 흐르는 기도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거기다가 내가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확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 경험 하나로 평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온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세 번이나 보았지만 전쟁에 이긴 다음 부상승수에 빠지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한 번만 기적을 보여 주셔도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세 번이나 주셨는데도 별로 오래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여러분도 만약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바다가 정말 짝 갈라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압도가 되어 다시는 딴 짓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고 믿음을 잘 지켜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겨우 둘입니다. 아침마다 땅바닥에 먹을 것이 생기는 기적,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어 안식일에는 안 생기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고친 것도 기적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제 맺힌 만나가 오늘 또 맺히니 금방 익숙해지고 별 것 아닌 듯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흥해가 갈라진 기억에다 요단강이 흐르다 중단된 기적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죄만 지은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나는 다를 것 같은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하는 큰 착각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뒤 온 세상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의 박해만 더 심해졌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꺼져가는 믿음을 되살리지도 못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 산 사람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가 쉬지 않고 나오지요. 조금만 지나 보세요. 의사가 처음에 오진을 한 것 같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나온 순간에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감사가 나오지요. 다시는 딴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섬기리라 싶지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현실도 녹녹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쳐 주셨다는 판단이 계속되면 감정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 머리라는 게 참 묘해서 금방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오진을 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된 걸 아직 의학 지식이 모자라 파악을 못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은사의 목적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처럼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으면 백 퍼센트 확신이 생기고 삶도 변화될 거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우선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과 다릅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개인 좋으라고 주시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 어느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남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요? 방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은사는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

기겠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으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지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지옥 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는 없이 그저 은사만 있었던 사람은 그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기적을 행하는 것이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 7:21-23).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한탕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지요. 한탕주의가 뭐니까?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이지요.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먹고사는 게 보통 인생이라면 한 번에 왕창 벌고 그 뒤로는 내내 놀면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벌어야 될 돈을 한 번에 다 벌고, 평생 조금씩 해 나가야 될 숙제를 단 한 순간에 끝내 버리겠다는 욕심입니다. 한탕주의의 대표는 아무래도 로또겠지요? 도박입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로또를 해 왕창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중에서도 희귀한 예외를 마치 좋은 모범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 때 한국 교회가 성령세례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이미 받은 교인들도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시는 이차 축복 곧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세례만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뜨겁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유독 이런 이야기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성미가 급하다 보니 한 방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나 내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은사를 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런 것을 단번에 끝장내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 그런 생각 뒤에 숨은 우리의 본 마음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꾸짖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니까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안 주겠다 하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주시려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표적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지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증거를 보여주면 안 믿고 다른 증거를 보이라 하고 다른 더 큰 증거를 보여주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걸 보이라 하면서 결국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 주셔도 결국 안 믿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표적을 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들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게 해 주셨고 또 오늘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때로는 크게 또 때로는 작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완전함에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가라 하셨습니다.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증거, 초자연적인 이적, 아니면 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해 하나님 능력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보여 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치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해도 다른 의심이 생길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내 말 한 마디에 되살아나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이 생기는 대신 기절했었나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까지 삶의 원리와 방법과 원동력과 지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요 우리를 살릴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생각이 없고 엉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건 지금 순종하기 싫은 내 마음을 감추고는 증거가 없어 못한다고 둘러대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증거를 주시면 순종하겠다 하는 위선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그 어떤 증거가 주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잘못이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믿음은 말씀이요, 말씀은 오늘도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내용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뭐 좀 화끈한 것 하나 없을까,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하게 만들 어떤 계기가 좀 없을까, 이런 기대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이상, 생각하는 사람인 이상, 그런 아쉬움, 답답함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판단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화끈하게 끝내겠다 하는 건 하나님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한 순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가라 하십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계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은사 아니겠습니까? 의심과 싸워 이기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한탕주의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기도했던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던가 돌아보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눅 21:36)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